

# “‘레스토랑 정원’ 특별한 경험 선사하고 싶어요”

## ■ 홀리데이인 신원석 총주방장

### 레스토랑 작은 텃밭에 유기농 채소·허브 재배 볼거리·체험거리 제공...안전한 식재료 공급도

“정원에서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원활한 식자재 공급을 돕고 싶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접 기른 농작물을 식탁에 올리는 ‘레스토랑 정원(Farm to Table)’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이 모래시계 뷔페 레스토랑 옆에 작은 텃밭을 조성해 다양한 채소와 허브를 재배,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텃밭의 총 책임은 신원석 총주방장이 맡았다.

신 총주방장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형식의 ‘레스토랑 정원’을 계획했다. 다양

한 이벤트를 통해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소속감과 협동성, 직장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선사하고 싶었던 취지가 있었다”며 “전 직원의 참여로 만들어진 텃밭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방법으로 가꾸고 있다. 개구리를 포함한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의 작은 텃밭으로 시작된 ‘레스토랑 정원’은 도심속의 특별한 볼거리 외에도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그리고 특별한 투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확된 농작물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샐러드를 포함한 각종 요리와 카테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이용한 특별한 메뉴도 선보일 계획이다.

투숙객들을 위한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램 다양한 액티비티와 패키지 상품 개발도 예정돼 있다.

특히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투숙객에게는 우리나라 농산물과 텃밭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텃밭의 채소가 식탁에 오른 후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을 때 이를 유기농 퇴비로 만들어 지속 가능성 유지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IHG)의 하나로 전세계에 1,500여 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이며 전라도에서 유일한 인터내셔널 브랜드 호텔이다.

전 세계 IHG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IHG 리워드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멤버 특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동반 가족여행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인 어린이 무료 투숙&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 광주송일중, 중국 현지문화체험학습

광주송일중학교는 최근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중국 선화 제1중학교를 5박 6일간 일정으로 방문, 현지 문화체험학습을 실시했다.



### 국제청년평화그룹, 평화강연회 개최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광주지부는 지난 3일 광주청년센터 더숲에서 평화의 답 PCWC 10주 38항을 알리기 위한 평화강연회를 열었다.



### 함평 월야초 방과후 학교 운영

함평 월야초등학교가 방학 중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 광주남부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광주남부소방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건물 922개소에 대해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장흥 대덕읍 김점배 향우 2,000만원 기탁 취약계층 선봉기 지원·주거환경개선 사용

장흥군 대덕읍 산외동 출신 ㈜전관 김점배(61) 대표는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대덕읍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점배 대표는 2014년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기탁, 2015년 인재육성장학금 3,000만원 기탁 등 섬없는 기부활동으로 ‘2017 사회봉사분야 장흥군민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점배 대표는 “나눔에 뜻이 있어도 계기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에 묻어둔 사람이 많이 있다”며 “고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폭염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으로 에어컨 노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3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 어르신 선봉기 지원사업, 조순·한부모가정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대덕 특화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재천 대덕읍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을 위해 성금을 쾌적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성금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점배 대표는 현재 아프리카·중동 한산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광주신세계 1층 오픈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이 오픈했다.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신세계는 2018광주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백화점 1층 컬처스퀘어에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홍보관은 16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2018광주비엔날레의 차별점인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인 주제전과 광주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우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벤트 행사로 광주비엔날레 주

제가 ‘상상된 경계들’인 것을 반영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해 묻는다. 포스트잇에 경계에 대한 단상을 적고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계정에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경계들’을 해시태그로 작성해 글을 올리면 광주비엔날레 SNS 계정을 팔로우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20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품은 코오롱 모터스 후원의 BMW 1박2일 시승권(2명)과 2018광주비엔날레 입장권(20명, 1인 2매), 광주비엔날레 아트상품(20명)이 마련돼 있다.

/이연수 기자



### 호남통계청, 사랑나눔 헌혈행사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3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학, 휴가철 등 특정시기에 반복되는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획됐으며, 혈액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기관차원에

서 헌혈행사에 발 벗고 나서주셔서 하절기 혈액수급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영방침 아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관차원에서 솔선수범해 헌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 무안고 이가이 학생 승달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안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가이 학생은 최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써 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전달했다.

이가이 학생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학금을 기탁했다.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학생으로 선정돼 정록청 소년육영회 전남지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50만원과 용돈 50만원을 모아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주위로부터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기탁한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무안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할 계획이다”며 “무안고 이가이 학생은 어른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봉사정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일



깨워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1994년에 설립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 해남 미항사 ‘달마고도’ 걷기 길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선정

전남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해남 미항사 ‘달마고도’ 걷기 길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별로 추천받은 68건 중 20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균형위 기관표창과 함께 해당 사업별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달마고도 걷기 길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옛길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길은 2015년 전남도에서 계획을 세워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미항사에서 출발해 큰바람재·노시랑골·물고리재 등으로 이어지는 17.74km 길이를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달마산 12 암자를 연결하는 ‘수행의 길’, 사람들이 장을 보러 오가던 ‘삶의 길’ 등을 중장비 동원없이 인력으로만 조성했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걷기길 조성 후 방문객이 늘어 관광객 증가효과도 입증됐다”며 “현재 조성 중인 담양 산막이길, 화순 너릿재 옛길, 완도 생일 섬길 등도 명품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목포대, 도내 7개 특성화고교와 업무협약

목포대학교는 최근 목포대 총장실에서 전남도내 7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목포대 김상재 총장

직무대리와 특성화고교 교장(구림공고, 진도실고, 해남공고, 목포여상고, 목포중양고, 여수정보과학고, 목포공고)을 비롯, 대학 주요 보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강성우 기자